于闐(Khotan)의 服飾에 관한 硏究

배화여자전문대학 의상과
조교수 김 소 현

目 次

Ⅰ. 서 론
Ⅱ. 于闐(Khotan)의 역사적 배경
Ⅲ. 于闐(Khotan)의 복식
1. 여자의 복식
2. 남자의 복식
3. 소 재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실크로드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중추적인 교통로로서 동과 서의 문화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문화교류의 장이었다. 이 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과 물자가 교류되고 서로 다른 문화가 전파되면서 문화의 변용이 일어났다. 복식에 나타난 문화교류의 양상을 서역남도에 위치한 于闐(Khotan, 호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역남도는 힌두쿠시 산중의 유목 국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가 전개되었고, 문화적으로 서역남도의 국가 사이에는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于闐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간선인 서역남도에서 중심 문화권을 형성했던 유력한 국가로서 복식 연구를 가능케하는 여러가지 유물이 남아 있어서 좋은 연구 대상이 된다. 또한 于闐 가까이에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던 尼雅가 있어서 尼雅 유적 출토물들은 于闐의 복식을 연구하는데 훌륭한 방증 자료가 된다.

于闐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문헌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을 고찰한 후 유물에 나타난 복식을 분석하여 于闐의 복식 양식을 규명하고, 동서의 교류가 이들 복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원전 2세기의 于闐의 정세를 전하는 [前漢書]로 부터 기원후 7세기의 기록인 [大唐西域記]에 이르기까지 于闐의 풍속이 기록된 중국의 史料를 검토한다. 유물로는 于闐의 고대 수도였던 요트칸에서 출토한 1~3세기경의 출토물, 于闐의 경내에 있었던 山普拉(Shanpula)의 1~3세기경의 古墓 출토복식, 요트칸 부근의 단단위릭 유적 출토물 중 복식이 묘사된 6~7세기경의 목판화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于闐과 같은 문화권에 있었던 精絶國의 수도이자 于闐의 동쪽 국경이었던 尼雅(Niya)유적의 1~3세기경의 출토복식과 敦煌의 石窟 壁畵 등을 참고로 한다.

Ⅱ. 于闐의 역사적 배경

타림분지의 小오아시스 국가는 몇몇 연합국가로

통합되어 유지되었다. 실크로드의 서역남도에 위치한 于闐은 그 중의 한 유력한 국가로서 중국인이 처음으로 于闐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기원전 2세기에 이미 번영기에 있었다. 1세기 이후에는 莎車國(Yarkand)를 포함하여 精絶(Niya)에서 疏勒(Kashgar)에 이르는 13개국을 다스리는 왕국을 이루었다. 남으로는 婼羌(Tibet)과 접하고, 북으로는 姑墨(Aksu)에 접했다[1].

于闐은 다른 오아시스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경과 과수 재배를 하는 한편 軟玉의 명산지로서 富를 축적하였으며, 3~4세기에는 麻布와 絹布 등 직물 생산으로도 이름을 떨쳤다[2].

于闐의 건국 설화에 의하면 북인도인이 于闐으로 이주해와서 국가를 건설하였다. 인도 阿育王은 왕비와 공모하여 太子의 두눈을 뽑아버린 叛臣을 축출하였는데, 축출된 宰臣이 于闐의 서쪽 부근에 이주하여 나라를 이루었다. 한편 벌을 받고 쫓겨난 인도의 한 왕자는 于闐의 동쪽 부근에 정착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서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패권을 다투는 투쟁이 일어났다. 東王이 西王을 멸하여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고 于闐을 수도로 삼았다.

카로슈티문자에 의하면 于闐에는 樓蘭과 마찬가지로 간다리라고 불리는 간다라 지방의 언어가 퍼져 있었다[3]. 그러나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중세 페르시아어에 가까운 于闐語를 사용하는 민족이 이동해 오게 되어[4] 于闐人은 인도 유럽語係인 于闐語를 쓰게 되었다.

于闐은 역사적으로 서방의 쿠샨(貴霜) 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인도·페르시아 등 서방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6~7세기에는 타림분지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돌궐의 지배하에 들게 되었으며, 7세기 후반에는 唐의 서역 진출로 인하여 唐의 安西 四鎭 중의 하나가 되었다. 11세기 이후로 이슬람화 되면서부터 于闐은 점차 그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于闐人의 외모에 대하여 [魏書], 西域傳, 于闐國條에 "高昌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눈이 깊고, 코가 높다. 단, 于闐國만 胡와 같지 않고 중국인 같다"고 기록하였다. 于闐의 고대 주민은 아리아인이지만 于闐人의 외모가 중국인과 비슷한 것은 인접해 있던 티벳의 혈통이 섞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원반형에 가까운 얼굴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는 于闐의 여러 회화에서도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Ⅲ. 于闐(Khotan)의 복식

魏에서 파견한 宋雲 일행의 견문이 기록되어있는 [洛陽伽藍記]에는 于闐의 풍속에 대하여 "其俗婦人袴衫束帶, 乘馬馳走, 與丈夫無異"[5]라고 하였고, [梁書]에는 "國中婦人, 皆辮髮衣裘袴"[6]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자도 남자와 같이 乘馬나 낙타를 탔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남자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복식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여자의 복식이 남자의 복식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上衣下袴임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자의 복식도 上衣下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기록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다. [北史]에는 "風俗物產與龜玆略同"[7]이라고 하였다. 龜玆를 비롯한 西域 各國의 복식 역시 남녀 모두 上衣下袴로서 于闐의 복식이 上衣下袴임

1) [前漢書], 卷 66 上, 西域傳.
2) [東洋歷史大事典], 卷 中(京都: 臨川書店), 1986, 117쪽.
3) 長澤和俊, [シルクロード文化史Ⅱ](東京: 白水社), 1983, 11쪽.
4) 于闐에 간다라 지방의 언어가 퍼져 있던 시기를 3세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와 7세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アジア歷史事典] 卷 8(東京;平凡社), 1962, 309쪽.
5) [洛陽伽藍記], 卷 5, 城北凝圖寺의 條.
6) [梁書], 卷 54, 列傳 第 48.
7) [北史], 卷 97, 列傳 第 85, 西域.

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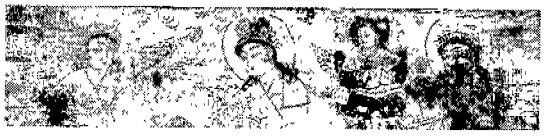
1. 여자의 복식

1) 冠帽, 髮飾, 耳飾

〈그림 1〉은 蠶種西漸圖라고 명명된 단단위릭에서 출토된 6~7세기 경의 목판화이다. 중국의 왕녀가 于闐으로 시집을 가면서 국외반출이 금지된 蠶種과 桑種을 冠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갔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그림 2〉 역시 단단위릭에서 출토된 6~7세기 경의 목판화인 三神像이다. 좌측에는 우주와 대기를 주재하는 神인 인드라, 중앙에는 풍요의 女神, 우측에는 모든 생물을 주재하는 神인 브라마가 묘사되어 있다[8]. 이들 蠶種西漸圖와 三神像에 보이는 여자의 冠帽는 아잔타 석굴을 비롯한 인도의 여러 석굴 벽화 및 부조에 묘사된 冠帽와 상당히 닮아서 인도의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불교가 전래된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보살상에서 동일한 형태의 관모가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漢이 처음으로 서역과 교류를 시작했던 1~2세기에는 서역남도의 동쪽인 樓欄이 거점이었고, 서쪽에는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쿠샨 왕국이 于闐을 동투르케스탄의 중심으로 삼았다[9]. 그런만큼 于闐에는 인도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 蠶種西漸圖와 三神像 등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가 제작된 시기는 쿠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훨씬 후의 일이지만 오랜 동안 인도의 영향이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목판화에 묘사된 冠帽는 쿠샨의 귀족 계층에서 착용하던 것으로 于闐에서도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착용하였거나 관념적으로 혹은 도식적으로 묘사해 넣었을 것이다.

于闐여인의 머리 모양에 대하여 [梁書]에는 "國中婦人, 皆辮髮"이라고 기록하였다. 요트칸에서 출토한 1~3세기 경의 婦女塑像인 〈그림 3〉과 〈그림 4〉에 보이는 머리 양식은 양쪽 어깨 위로 가지런히 늘어져서 이집트의 머리모양을 연상 시킨다. 표현된 머리 가닥은 변발한 탓인지 굵게 표현되어 있다. 蠶種西漸圖의 왕녀와 시녀, 그리고 三神像에 묘사된 풍요의 여신의 머리모양은 보살상의 머리모양과 동일하게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를 어깨에 드리우고 있다. 다만 머리카락의 끝부분이 갈래 갈래로 묘사되어 있어서 여러가닥의 辮髮을 표현한



〈그림 1〉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 蠶種西漸圖, 6~7세기
(출처:Roderick Whitfield & Anne Farrer,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

〈그림 2〉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 三神像, 6~7세기
(출처:Roderick Whitfield & Anne Farrer,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

〈그림 3〉 요트칸 출토 婦女塑像, 前面, 1~3세기
(출처:「西域美術」 3-工藝. 彫塑. 壁畵)

〈그림 4〉 요트칸 출토 婦女塑像, 後面, 1~3세기
(출처:「西域美術」 3-工藝. 彫塑. 壁畵)

8) Roderick Whitfield & Anne Farrer,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London: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td), 1990, p. 160.

9) 國立中央博物館編, [中央아시아美術](三和出版社), 1986, 134쪽.

것처럼 보인다.

于闐여인의 辮髮에 대하여 李肖泳은 1~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山普拉 古墓 출토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山普拉 古墓 출토물을 보면 여자들의 머리는 여러갈래의 변발인데 갈래 갈래가 두껍고 길다. 대부분이 가느다란 세가닥을 모아서 하나의 辮髮을 이루는 여러갈래의 辮髮을 했다. 辮髮 한개의 넓이는 2.3cm, 두께는 1cm 정도이다. 장식용 가발도 있어서 자신의 진짜 머리와 합쳐서 땋기도 하고, 다시 3개나 6개의 갈래로 된 가발을 합쳐서 땋기도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머리모양이 굵어 보이고 더욱 검게 보인다. 한편 '撚辮'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辮髮 형식이 있다. 우선 두갈래로 머리를 땋은 후, 그 들을 다시 땋아서 한 갈래의 변발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변발은 가늘고 짧다. 직경 0.5cm, 길이 4.8cm 정도이며 가장 많게는 16개의 갈래를 하나의 변발로 만들 수 있다[10].

귀걸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신구이다. 대부분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있어서 시선을 끈다.

2) 의 복

蠶種西漸圖인 〈그림 1〉에서 여자 복식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화면의 중앙에 정장한 왕녀가 있고 왼편의 시녀는 왕녀의 冠帽를 가리키며 冠 속에 蠶種이 감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두 사람 사이에 그려진 바구니에는 누에고치가 수북하게 담겨 있고 오른편 아래에는 방직기가 그려져 있으며 그 옆의 시녀는 비단을 짜기 위해 빗살 형태의 바디(筬)를 가지고 있다. 방직기 위편에는 絹의 수호신인 四臂像이 묘사되어 있다. 여러개의 팔을 가진 多臂像은 서역미술에서 강력한 권위를 나타내는 도식으로 사용되었다. 왕녀는 窄袖衣 위에 덧옷으로 몸에 꼭 끼는 左衽의 半袖衣를 입었다. 王女가 착용한 半袖衣의 여밈이 左衽으로 그려진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오른쪽을 향해 앉은 공주의 자세를 묘사할 때, 의복을 左衽으로 묘사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의복의 세부묘사보다는 화가의 의지가 우선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주의 왼편에서 공주의 寶冠을 가리키고 있는 여자도 역시 몸에 꼭 끼는 좌임의 반수의를 착용하였다. 서로 마주보는 자세를 하고 있는 왕녀와 시녀가 착용한 半袖衣의 여밈이 똑같이 左衽인 것은 于闐의 여밈 방식인 左衽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半袖衣 차림은 于闐에서 가장 일반적인 복식 양식으로서 오른편의 시녀는 盤領의 半袖衣를 착용하였다. 〈그림 2〉의 三神像에 묘사된 풍요의 여신도 盤領의 半袖衣를 입었다.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풍요의 여신은 日·月을 손에 쥔 四臂像으로 묘사되고 있다.

옛 精絶國의 수도로서 于闐과 인접해 있던 尼雅에서 半袖衣를 비롯한 여러가지의 복식이 출토된 바 있다. 尼雅 유적은 後漢時代(AD. 25~220)의 것으로 여기에서 출토된 여성 복식은 對襟窄袖衣, 直領半袖衣, 上衣下裳式의 立領衫, 양옆이 터진 盤領衫, 裳 등이다.

〈그림 5〉는 尼雅에서 출토된 盤領窄袖衫으로 홍색 바탕에 수구를 녹색으로 대었으며 양 옆이 터져있다. 이같은 盤領窄袖衫은 山普拉 古墓에서도 출토된 바 있으며 여러 미술자료에서 볼 수 있는 의복의 특징과 일치한다. 于闐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의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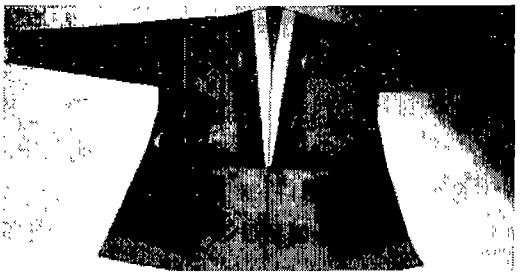
〈그림 6〉은 尼雅에서 출토된 上衣下裳式의 立領(스탠드 칼라)衫이고 〈그림 7〉은 그 도식화이다. 그 치수는 화장 84cm, 수구 13cm, 아래폭 85cm이다. 옅은 남색 絹으로 제작되었으며 수구, 깃, 길의 선단, 여밈끈은 백색 絹으로 되어있다[11]. 衣와 연결된 원통형 裳의 허리 부분에는 주름이 약간

10) 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新疆人民出版社), 1995, 80쪽.
11)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新疆民 縣北大沙漠中古遺蹟墓葬區東漢合葬墓清理簡報", [文物], 1960年 第6期, 11쪽.

〈그림 5〉 尼雅 출토, 盤領窄袖衫, 1~3세기
(출처:李肖泳,「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그림 6〉 尼雅 출토, 上衣下裳式의 立領衫, 1~3세기
(출처:李肖泳,「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그림 7〉 尼雅 출토, 上衣下裳式의 立領衫의 도식화,
1~3세기 (출처:李肖泳,「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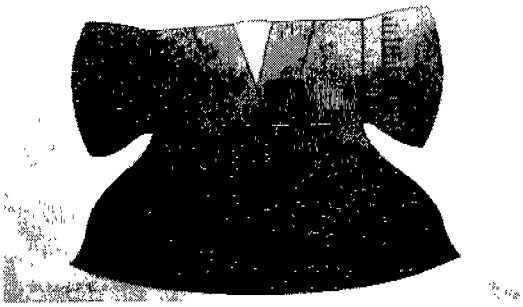
〈그림 8〉 尼雅 출토, 對襟窄袖衣, 1~3세기
(출처:李肖泳,「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잡혀있다. 원피스 형식으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 衫에는 스탠드 칼라가 달려 있다. 아직 발굴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尼雅 출토 복식 중에는 스탠드 칼라가 달린 옷이 많이 있어서 미적 취향과 더불어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알맞게 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于闐의 미술 자료에서는 立領衣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스탠드 칼라가 달린 의복은 精絶國만이 갖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8〉은 尼雅에서 출토한 對襟窄袖衣이다. 길이가 94cm이고, 몸에 꼭 끼며, 아래폭은 121.5cm이다. 소매는 좁으나 화장이 110.5cm로 길어서 손을 덮고, 수구는 16cm이다. 솜을 얇게 둔 겹옷으로 겉감은 옅은 황색 綺, 안감은 남색 絹으로 만들었다. 수구, 허리선, 좌우길의 허리 선 위로 깃 부분과 진동선까지 남색 바탕 위에 花鳥紋을 수놓았다. 허리 아래로 좌우에는 길이 37cm, 넓이 9cm의 綠色帶가 4쌍 달려 있다[12]. 옷이 몸에 꼭 끼어 보이도록 묶어주는 일종의 장식용 帶다. 蠶種西漸圖에 묘사된 여성의 의복이 가슴선이 드러날 만큼 몸에 꼭 끼는 것은 于闐人의 착장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衣의 좌우에 여러개의 帶를 묶는 착장 방식도 그러한 于闐人의 기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9〉는 尼雅에서 출토한 直領半袖衣로서 황색견으로 겉을 만들고 담황색견으로 안감을 댄 겹옷이다. 옷길이는 120cm, 화장 70cm, 수구 40cm, 아래폭 154cm이며, 對襟窄袖衣와 동일한 綠色帶가 허리 아래로 좌우에 5쌍 달려 있다[13]. 襦위에 착용하는 半袖衣는 襦보다 옷길이가 길고 품도 넓으며 소매통도 넓지만 소매길이는 짧다. 소매에는 잔 주름이 잡혀 있어서 중국에서 말하는 繡褾을 연상시킨다. 중국에서는 半袖衣의 기원을 漢代의 繡褾로 잡고 있으며[14] 〈그림 10〉에서와 같이 四川

12)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新疆民 縣北大沙漠中古遺蹟墓葬區東漢合葬墓清理簡報", [文物], 1960年 第6期, 12쪽.
13)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新疆民 縣北大沙漠中古遺蹟墓葬區東漢合葬墓清理簡報", [文物], 1960年 第6期,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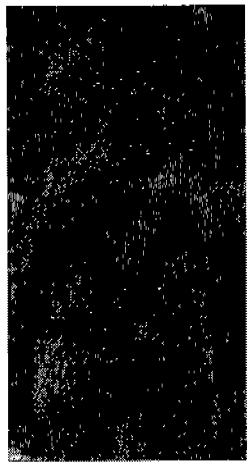
〈그림 9〉 尼雅 출토, 直領半袖衣, 1~3세기
(출처:李肖泳,「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그림 10〉 四川省 출토 女俑, 1~3세기
(출처:周迅 高春明,「中國歷代婦人裝飾」)

省 출토 女俑에서 繡褾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아 유적이나 四川省 유물이 모두 漢代의 것이므로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중국에서는 繡褾을 착용한 모습을 四川省에서 출토한 도용에서 볼 수 있다. 繡褾을 착용한 도용의 신분은 시녀로서 대개 가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착용 지역이나 연대가 四川省 출토물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漢代에 서역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많은 서역의 물자가 도입되었다. 서역의 가무와 더불어 거기에 착용되는 의복 즉 繡褾式 半袖衣가 도입된 것은 아닐까. 중국의 唐代에 胡風과 더불어 半袖衣를 즐겨 착용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 당시 중국에서 착용된 半袖衣는 세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가 盤領, 對襟의 半袖衣로서 陝西 西安 東郊 王家墳唐墓 出土 三彩俑인 〈그림 11〉에 잘 나타나 있다. 둘째는 直領, 對襟의 半袖衣로서 706년 永泰公主墓石刻畵인 〈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 세째는 〈그림 13〉의 樂廷 陵夫人行香圖에서 볼 수 있는 貫頭衣型 半袖衣이다. 貫頭衣型 半臂를 王宇清[15]은 套衫式 半臂라고 하였고, 沈從文[16]은 套頭式이라고 하였다.

漢族의 의복 양식은 몸을 깊이 감싸고, 右衽을 특징으로 하는 交衽양식이다. 이에 비하여 중국에서 착용한 半袖衣의 형태는 목둘레를 깊이 파서 가슴이 노출되는 것이 있고, 貫頭衣型이 있는가 하면 衽袖인 것도 있어서 漢族의 전통적인 복장 양식과 상치되는 것이 많다. 唐代 詩人 李賀(790~816년)의 詩에 "邀人裁半袖, 端坐据胡床"이라는 구절이 있어서 半袖衣를 입고 胡床에 앉는 唐代 胡風의 유행 양상을 엿볼 수 있다. 半袖衣는 서역 중에서도 특히 于闐에서 즐겨 착용한 것을 미술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半袖衣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半袖衣는 于闐의 기후적 특색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의복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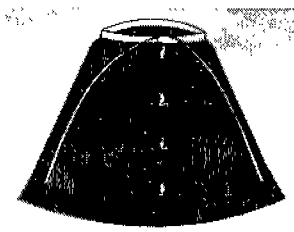
〈그림 11〉 陝西 西安 東郊 王家墳 唐墓 出土 三彩俑
(출처:周迅, 高春明,「中國歷代婦人裝飾」)



〈그림 12〉 永泰公主墓 石刻畵, 706년
(출처: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究」)

14) 이진영(1997), "背子 고찰을 통한 韓·中·日 복식문화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8~10쪽.
15) 王宇清(1984), [中華服飾圖錄](世界地理叢書), 85쪽.
16)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香港: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1, 206쪽.

〈그림 13〉 樂廷瑍夫人行香圖, 740년대 (출처: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人裝飾」)



〈그림 14〉 尼雅 출토, 裳, 1~3세기(출처: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그림 15〉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 貴人騎乘圖, 6~7세기(출처:Rod-erick Whitfield & Anne Fatter,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

〈그림 16〉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 貴人騎乘圖, 6~7세기(출처:原田淑人, 「唐代の服飾」

바지는 山普拉(Shanpula) 古墓와 尼雅(Niya) 유적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여자도 남자와 같이 바지를 입었으므로 출토된 바지를 남자의 것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겠다.

한편 〈그림 14〉에서와 같이 길이 93cm, 허리폭 50cm, 아래폭 130cm인 裳도 尼雅에서 출토되었다. 于闐여자들의 기본 복장은 고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上衣下袴이지만 尼雅 출토물로 판단컨대 下裳을 착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남자의 복식

1) 冠 帽

于闐王의 冠帽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록이 있다. [梁書]에 "王冠金幘, 如今胡公帽, 與妻竝坐接客"[17] 라고 있고, [北史]에는 "練錦帽金鼠冠, 妻載金花,其王髮不令人見, 俗言若見王髮, 其年必儉云"[18] 이라고 하였다. 또한 [洛陽伽藍記]에는"于闐國王頭着金冠, 似雞幘, 頭後垂二尺生絹, 廣五寸以爲飾"[19] 라고 하였다. 王冠에 대하여 [梁書]에는 金幘이라고 하였고, [北史], [魏書], [周書]에는 練錦帽金鼠冠이라 했으며, [隋書]에서도 金鼠冠이라 하였다. 金幘, 錦帽金鼠冠, 雞幘등의 여러가지 명칭은 모두 동일한 冠帽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原田淑人은 [大唐西域記], 卷 12, 瞿薩旦那國[20] 條에 "于闐의 砂磧 중에 金銀鼠가 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에 제사해 복을 구한다"는 기록을 근거로 錦帽에 장식하는 金鼠의 상징성을 찾고 있다[21]. 설화에 의하면 흉노가 于闐을 공격하였을 때 金鼠의 큰 무리가 흉노의 활 및 기타 장비를 물어뜯어서 于闐王이 흉노의 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 후로 于闐王은 于闐의 서방에 사는 쥐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기렸다고 하는데, [大唐西域記]의 기록이 바로 위와 같은 于闐의 풍습을 말해주는 것이다.

金幘, 錦帽金鼠冠, 雞幘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

17) [梁書], 卷 54, 列傳 第 48.
18) [北史], 卷 97, 列傳 第 85, 西域.
19) [洛陽伽藍記], 卷 5, 城北凝圓寺의 條.
20) 瞿薩旦那는 인도에서 于門을 부르는 호칭인 Kustana를 음역한 것이다.
21) 原田淑人, [唐代の服飾](東京: 東洋文庫), 1970, 187쪽.

리는 王冠은 '貴人騎乘圖'로 불리는 6~7세기 경의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인 〈그림 15〉와 〈그림 16〉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5〉의 상단에는 기마인물이 묘사되어있고, 하단에는 낙타를 탄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22]. 낙타를 탄 인물이 쓴 冠帽의 주변에는 닭의 벼슬과 같은 모양이 둘려있고, 머리 뒤에는 리본 같은 천을 드리우고 있어서 [洛陽伽藍記]에 기록된 王冠의 설명을 상기시킨다. 〈그림16〉의 인물이 쓴 冠帽도 뒤에 드리운 천은 없지만 형태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길게 늘어뜨리는 于闐의 머리 모양과는 달리 〈그림 15〉의 하단 인물과 〈그림 16〉의 인물은 머리카락을 늘어 뜨리지않은 모습으로 묘사 되어 있다. 이는 [北史]에 "其王髮不令人見, 俗言若見王髮, 其年必儉云"이라는 기록과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림 15〉의 하단 인물과 〈그림 16〉의 인물은 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왕관의 형태는 于闐에서 착용하는 冠帽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계급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림 17〉은 敦煌 159窟 벽화인 維摩經變相圖 중의 각국 사신도로서 각국 사신들 가운데 于闐의 특징적인 冠帽을 쓴 모습으로 인하여 于闐의 사자를 구별할 수 있다. 李公麟의 五馬圖卷인 〈그림 18〉에 묘사된 于闐의 使者가 쓴 冠帽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梁書]에 "王冠金幘, 如今胡公帽"라는 기록을 보면 〈그림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唐代에 유행한 胡公帽가 于闐과의 교류 속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 복

미술자료에서 볼 수 있는 于闐의 의복은 대부분 盤領衣이다. 〈그림 20〉은 蠶種西漸圖에 묘사된 四臂像이다. 盤領의 半袖衣와 바지를 입었으며 帶를 띠고 長靴를 신었다. 네개의 손에는 실패와 삼각의 날을 가진 실 끊는 칼, 납작한 굽이 달린 술잔 등을 들고 있다. 絹의 守護神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6~7세기 경의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인 〈그림 21〉은 蠶種西漸圖의 四臂像과 유사한 圖像을 갖고 있다. 금관을 쓰고, 盤領衣와 바지를 입고 검은색 장

〈그림 17〉 敦煌 159窟 壁畵 (출처:「中國石窟-敦煌莫高窟 四」

〈그림 18〉 李公麟의 「五馬圖卷」, 11세기 (출처: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下」

〈그림 19〉 陝西咸陽邊防村 出土 彩繪俑 (출처: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下」

〈그림 20〉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 蠶種西漸圖, 6~7세기 (출처:Rod-erick Whitfield & Anne Fatter,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

22) 이 그림은 호탄의 수호신인 昆沙門天(Vaisravana)像과 관련있는 것으로 본다. 전설에 의하면 昆沙門天의 侍者가 회생물의 새로 가장한 위구르족의 수호신 베카르를 쳐서 쓰러뜨렸다고 한 다. 그런 면에서 이 판화는 호탄의 속국 인물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Roderick Whitfield & Anne Farrer,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London: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td), 1990, p162.
大英博物館 編, [西域美術 3 - 工藝.彫塑.壁畵](講談社), 1982, 3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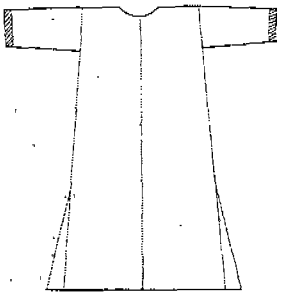
화를 신었으며 허리에는 검을 찼다.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蠶種西漸圖에 묘사된 四臂像이 들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유라시아 일대의 석인상들을 보면 예외없이 손에 잔을 들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내세 신앙과 관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석인상이 돌아간 선조들의 초상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바치는 제사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손에 잔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H. 세르-오드잠에 의하면 가축을 방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족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바치는 샤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석인상의 손에 있는 잔은 바치는 공물을 받는 식기 혹은 잔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23]. 于闐의 미술자료에 묘사된 잔을 유라시아 일대의 석인상이 들고 있는 잔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유사성은 인정된다. 〈그림 15〉, 〈그림 16〉, 〈그림 20〉, 〈그림 21〉에 묘사된 인물들은 모두 손에 잔을 쥐고 있다. 강력한 권위를 나타내는 도상으로 사용된 四臂像은 神像으로서 그들이 손에 쥔 잔은 공물을 받기 위한 잔이라고 생각되며, 두개의 팔을 가진 인물들은 속세의 인물들로 공물을 바치기 위하여 잔에 담아 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三神像인 〈그림 2〉의 왼편 인물은 대기를 주재하는 신인 인드라로서 손에 번개를 쥐고 있으며, 오른편 인물은 모든 생물을 주재하는 신인 브라마로서 얼굴이 세개이고 각 얼굴마다 눈이 세개이며 손에는 활과 화살, 그리고 잔을 가지고 있다. 브라마가 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잔은 인간이 바치는 공물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窄袖衣 위에 盤領의 半袖衣를 착용하였으며, 下衣로는 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貴人騎乘圖인 〈그림 15〉, 〈그림 16〉은 속세의 인물들로 窄袖衣 위에 盤領의 半袖衣를 입었는데 그 길이는 무릎에 닿을만큼 길다. 허리에는 帶를 띠었으며 帶의 왼쪽에 칼을 매달았다. 下衣로는 袴를 입고 靴를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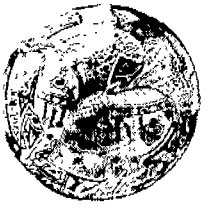
山普拉(ShanPuLa) 漢代 古墓에서 출토된 盤領窄袖衣와 바지는 앞에 설명한 于闐의 미술자료에 묘사된 복식의 양식과 일치한다. 출토된 盤領窄袖衣는 貫頭衫 즉 튜닉으로서 중국에서 유행하던 盤領의 카프탄과는 다르다. 〈그림 22〉는 山普拉(ShanPuLa) 漢代 古墓에서 출토된 盤領窄袖衣의 도식화로서 옷자락은 발에 닿을만큼 길고, 무릎 대서 폭을 넓게 했으며, 어깨넓이 70cm, 소매폭 30cm, 수구 약15cm이다[24]. 漢이 처음으로 서역과

〈그림 21〉 단단위릭 출토 목판화, 絹의 守護神, 6~7세기(출처:Rod-erick Whitfield & Anne Fatter,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



〈그림 22〉 山普拉(ShanPuLa) 漢代 古墓 出土, 盤領窄袖衣의 도식화, 1~3세기 (출처: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그림 23〉 쇼토라크 출토, 카샤파형제의 佛禮拜圖 (출처:「シルクロエド博物館」)



〈그림 24〉 Nishapur, 陶器에 그려진 騎馬人物像(출처: R.W. Ferrier, The Arts of persia)

23) 데 바이에르 지음, 박원길 옮김, [몽골석인상의 연구](서울: 도서출판 혜안), 1994, 89쪽.
24) 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新疆人民出版社), 1995, 81쪽.

교류를 시작했던 1~2세기경에 쿠샨(Kushan)은 于闐을 동투르케스탄의 중심으로 삼고 지배했는데[25] 쿠샨의 복식양식은 〈그림 23〉의 쇼토라크 출토, 카샤파 형제의 佛禮拜圖에서 보는 바와같이 盤領窄袖의 튜닉과 바지를 입는 것이었다. 쿠샨 이후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떨쳤던 사산조 페르시아의 복식양식도 역시 〈그림 24〉의 기마인물상에 보이는 바와같이 盤領窄袖의 튜닉과 바지를 입는 二部式이다. 敦煌 45굴 벽화인〈그림 25〉에 보이는 胡族 상인, 敦煌 220굴 벽화인 〈그림 26〉에 보이는 서역 각국 사신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복식 양식은 서역인에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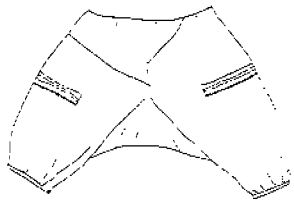
山普拉(ShanPuLa)에서는 絹, 褐, 毛, 皮 등으로 만든 여러가지 바지가 출토되었다. 가죽바지의 경우 가죽을 겉으로 쓰고 털이 안쪽에 닿도록 제작되어서 추위와 바람을 막기에 적합하다. 〈그림 27〉은 山普拉(ShanPuLa)에서 출토된 바지의 도식화로서 그 구성이 노인우라에서 출토된 흉노의 바지인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 달려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림 27〉의 바지의 소재가 〈그림 29〉에서와 같이 푸른 눈과 높은 코를 가진 이국적인 인물의 초상화가 직조된 모직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림 30〉과 같은 半人半獸紋이 직조되어 있기도 하다. 半人半獸紋은 그리스·로마 조형의 특징으로 서방문화의 유입을 증거하는 것이며 동서문화 교류의 면모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서역북도는 북방초원의 유목국가와 관계가 깊었고, 서역남도는 힌두쿠시 산중의 유목국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가 전개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림 28〉이나 〈그림 29〉와 같은 서방적인 소재는 서역남도가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한편 〈그림 31〉은 尼雅에서 출토된 바지로서 겉감은 거친 면이고 안감은 가는 絹으로 된 겹바지이다. 바지를 착용하는 유목민족들은 거친 들판을

〈그림 25〉 敦煌 45窟 壁畵 (출처:「中國石窟-敎皇莫高窟 一」)

〈그림 26〉 敦煌 220窟 壁畵 (출처:「中國石窟-敎皇莫高窟 三」)

〈그림 27〉 山普拉(Shan PuLa) 漢代 古墓 出土 바지, 1~3세기(출처: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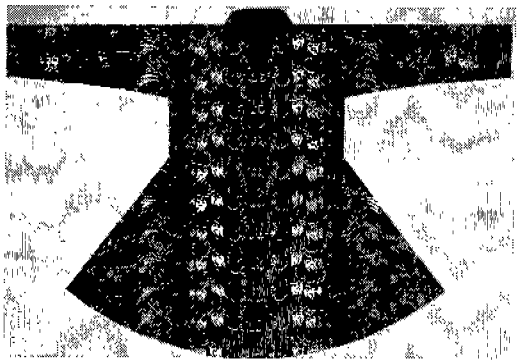


〈그림 28〉 노인우라 출토 匈奴 바지의 도식화 (출처: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그림 30〉 山普拉(Shan PuLa) 漢代 古墓 出土 바지 斷片, 1~3세기 (출처: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그림 31〉 尼雅 出土 바지, 1~3세기 (출처: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25) 國立中央博物館編, [中央아시아美術](三和出版社), 1986, 134쪽.



〈그림 32〉 尼雅 出土 萬世如意 錦袍, 1~3세기
(출처:李肖泳,「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그림 33〉 敦煌 98窟 壁畵, 10세기
(출처:世界美術大系-「中國美術**」)

달리는데 적합하도록 의복을 가죽으로 만들었다. 匈奴의 의복의 소재도 가죽 위주였으나 漢代의 견직물을 알고난 후에는 견직물을 애호하여 겉에는 가죽옷을 입을 지라도 속에는 견직물을 착용하였다. 견직물을 겉으로 착용하면 아름답기는 하겠지만 마찰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견직물은 속으로 착용하고 겉에는 마찰에 잘 견디는 소재를 착용하였던 것이다. 尼雅에서 바지의 겉에 거친 옷감을 사용하고 견직물을 안에 사용한 것은 匈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된다.

尼雅출토 유물 중에는 〈그림 32〉와 같은 [萬世如意]라는 명문이 들어간 錦袍가 있다. 무릎 길이의 이 袍는 對襟, 左衽, 窄袖로서 유목민족 특유의 구성을 하고 있으나 袍의 아래가 퍼지도록 제작된 것으로 보아서 예복으로 사용된 듯하다.[26] 소재는 漢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복장 양식은 중국의 복장 양식과 분명히 구별된다.

조영연대가 923년에서 926년으로 추정되는 敦煌 98굴인 〈그림33〉에서는 중국화된 于闐의 복식을 볼 수 있다. 10세기의 敦煌은 節度使 曹議金이 군림하던 시기로서 曹議金의 처는 위구르왕의 누이였고, 曹議金의 누이는 于闐왕에게 시집을 가는 등 혼인 관계로 서로 얽혀있었다. 98굴의 甬道에는 曹議金의 공양도가 그려져 있고, 主室 東壁에는 于闐왕과 왕비가 그려져 있는데 그 화면 왼쪽에는 "大朝大寶于闐國大聖大明天子"라고 쓰여있다. 于闐왕 일행의 복장은 中國化되어 있고, 그 중에서 왕은 冕服, 왕비 曹氏는 褕衣를 입었다. 그러나 중국제 그대로가 아니라 于闐化한 것으로서, 특히 冕旒冠에서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 보인다. 복식에 나타나는 중국화 양상은 미술사적으로도 중국미술이 唐代에 절정을 이루며 于闐의 전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사실[27]과 무관하지 않다. 왕비의 冠帽에서는 위구르 양식이 엿보인다.

李公麟의 [五馬圖卷]인 〈그림 18〉에 나타난 于闐의 使者는 突闕式 翻領袍를 착용하였다. 突闕이 동서투르케스탄에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던 6세기부터 타림분지 특히 서역북도에 있는 국가들의 복장이 대부분 突闕化한 것에 비하여 于闐에서는 여전히 于闐의 전통적인 양식을 착용하였으나 李公麟의 회화에 그려진 于闐使者의 복식을 통하여 11세기에 이르면 于闐의 복식도 突闕化된 것을 알 수 있다.

3. 소 재

의복의 소재에 대하여 [大唐西域記], 卷 12, 瞿

26) 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新疆人民出版社), 1995, 72쪽.
27) Mario Bussagli 著, 權寧弼 譯, [中央아시아繪畵](서울:일지사), 1978, 74쪽.

薩旦那國 條에 "出氍毛氈 細氈, 工紡績絁紬,..., 少服毛褐氈裘, 多衣絁 紬白疊"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于闐의 의복 재료는 氍毛氈, 細氈 등의 모직물, 絁, 紬의 견직물과 더불어 면직물인 白疊등 다채로운 피복재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玄奘이 于闐을 방문했을 때는 모직물 위주로 착용하는 다른 오아시스 국가에 비하여 毛, 氍毛, 氈, 裘등의 모직물 외에도 絁, 紬, 白疊 등의 견직물과 면직물 생산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于闐의 복식은 기본적으로 上衣下袴의 二部式이다. 半袖衣를 즐겨 착용하였고, 여자들은 裳을 덧입기도 하였다. 衣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한다면 直領의 카프탄과 盤領의 튜닉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복식 양식은 쿠샨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북인도의 복식 특징을 지녔으며 더 넓게는 인도·페르시아계 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7세기 이후로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과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盤領衣는 于闐을 포함하여 서역인에게 가장 보편적인 의복이었다. 중국에서도 南北朝시대 이후 盤領衣를 착용했지만 중국의 盤領衣는 튜닉이 아닌 카프탄이다. 복식 유물과 회화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于闐의 盤領衣는 중국의 史書에 서술된 페르시아의 복장양식인 "貫頭衫" 즉 튜닉이다. 突厥의 세력이 중앙아시아를 휩쓸던 시기에 타림분지의 복장은 대부분 翻領의 카프탄인 突厥 양식으로 변화하였지만 于闐의 복식양식은 오랜동안 튜닉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11세기 李公麟의 [五馬圖卷]에서 突闕式 翻領袍를 입은 于闐使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半袖衣는 于闐에서 가장 일반적인 복식 양식이었다. 중국에서도 半袖衣를 半袖, 半臂, 背子 등으로 부르며 덧옷으로 착용하였다. 漢族의 복식 양식은 몸을 깊이 감싸고, 右衽을 특징으로 하는 交衽 양식인데 비하여 중국에서 착용한 半袖衣의 형태는 盤領·對襟, 直領·對襟, 貫頭衣型 등으로 漢族의 전통적인 복식양식과 상치되는 것이 많다. 중국에서 半袖衣를 덧옷으로 착용한 모습은 唐代에 많이 볼 수 있는데, 半袖衣가 于闐등 서역으로부터 전래되어서 胡風의 유행과 더불어 많이 착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史 料

1. [前漢書], 漢, 班固撰, 唐, 顔師古注.
2. [洛陽伽藍記], 魏, 宋雲撰.
3. [北史], 唐, 李延壽撰.
4. [梁書], 唐, 姚思廉奉勅撰.
5. [大唐西域記], 唐, 玄 譯, 辯機撰.

· 現代書

1. 國立中央博物館編,[中央아시아美術], 서울: 三和出版社, 1986.
2. 金素賢,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硏究",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94
3. 大世界史 2 - [아시아 國家의 전개], 서울: 太極出版社, 1982.
4. 데 바이에르 지음, 박원길 옮김, [몽골석인상의 연구], 서울: 도서출판 혜안, 1994.
5. 마리오 부싸알리 著, 權寧弼 譯, [中央아시아繪畵], 서울:일지사, 1978.
6. 벤저민 로울랜그 지음, 이주형 옮김, [인도미술사], 서울: 도서출판 예경, 1996.
7. 大英博物館 編, [西域美術 1 - 敦煌繪畵 1], 講談社, 1982.
8. 大英博物館 編, [西域美術 2 - 敦煌繪畵 2], 講談社, 1982.
9. 大英博物館 編, [西域美術 3 - 工藝.彫塑.壁畵], 講談社, 1982.
10. [東洋歷史大事典], 卷 中, 京都: 臨川書店,

1986.
11. 世界の博物館 19－[シルクロード博物館], 講談社, 1979.
12. 世界美術大系－[中國美術 *], 講談社, 1963.
13. 世界美術大系－[中國美術 **], 講談社, 1964.
14.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新疆民 縣北大沙漠中古遺蹟墓葬區東漢合葬墓清理簡報", [文物], 1960年 第6期.
15. [新疆ウイグル自治區博物館], 新疆ウイクル自治區博物館 編, 東京;講談社, 1987.
16. [シルクロードの事典], 前嶋信次.加藤九祚, 芙蓉書房, 1975.
17.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18. [アジア歷史事典] 卷8, 東京;平凡社.
19. 王宇清, [中華服飾圖錄], 世界地理叢書, 1984.
20.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1970.
21. 李肖泳,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新疆人民出版社, 1995.
22. 李眞英, "背子 고찰을 통한 韓·中·日 복식문화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97.
23. 長澤和俊, [シルクロード文化史 Ⅱ], 東京: 白水社, 1983.
24. 周迅,高春明,[中國歷代婦人裝飾], 三聯書店有限公司, 1988.
25. 中國の博物館 1－[陝西省博物館], 講談社, 1981.
26. 中國の博物館 3－[遼寧省博物館], 講談社, 1982.
27. [中國石窟-敦煌莫高窟 一, 二, 三, 四, 五], 敦煌文物研究所 編, 平凡社, 1980-82.
28.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上/下],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 1986.
29. R. W. Ferrier, The Arts of Persia, Yale University Press, 1989.
30. Roderick Whitfield & Anne Farrer,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 London: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td,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of Khotan

Focusing on Khotan located in the southern Silk Route whic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kingdoms in the Tarim Basi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hanges of costume in Khotan, by comparing the costumes in the painted panel showing the story of silk princess with the excavated costumes from ancient tombs.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its western neighboring country, Eastern and Western Turkestan on costume. Excavated costumes from the Shanpula ancient tomb in the region of Khotan and from ancient Niya in the eastern border of Khotan, and discoveries from Rawak and Dandan-oilik, near by Yotkan, the ancient capital of Khotan are examined.

Basic Khotan's costume was the two piece style of tops and trousers. Over the basic costume wearing a top wear with half sleeves was popular. Skirt was worn by women. Even though there were many kinds, tops were classified into the two types, kaftan and tunic. Though Khotan maintained a association with China for a long time, the style of Khotan costume had imbued to China.

Top wear with half sleeves was worn frequently in Khotan. Also in China top wear with half sleeves was worn as over-wear which was called ban-xiu, ban-bi, bei-zi. Costume style of China is covering the body profoundly and wrapping front edge toward the right. The types of chinese top wear with half sleeves, for example round-neck · confronting front edge, crossing-neck · confronting front edge, tunic type, discord with the traditional chinese costume style. There were many cases that half sleeved top wear was worn as over wear in T'ang dynasty. The phenomenon was due to the prevalence of 'ho' (foreign), and half sleeved top wear was introduced by the countries to the west of China, Khotan.

A round neck garment was a general type for the men of countries to the west of China. Also Chinese wore round neck garment, since South and North Dynasty. The type of Chinese round neck garment was not tunic, but kaftan. From costume relics and ancient paintings, the type of Khotan's round neck garment was tunic which was recorded on the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as "guan-tou-shan", that is tunic, the type of persian costume. Even though the painted panel showing the story of silk princess was made in the time when Turks was a dominion on Central Asia, Khotan's costume style was not changed toward Turk's costume style, and remained tunic style.